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 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법공양 페이지

# 나무는 뿌리 믿기에 봄오면 꽃이 피죠

### 17면에서 계속

금은 그런 시대 아니예요.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깎아먹는 시대 때버렸어요. 지금 내 집이 내 정신을 세우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는 거죠. 펑펑 나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겁때기만 왔었다 하고 사는 게 되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 가선 허무한 생각에 말할 수 없이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만 하죠. 나를 바라보고 사는 주위 사람들 생각해서 내놓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으니 이게 엄청난 문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부를 안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부라고 할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나무들은 본래 뿌리가 있는 것 보시죠? 우리도 본래 뿌리가 있던 말입니다. 본래 자기 뿌리가 있는데

처버려야 되겠어.' 이란다면 그것은 자기가 너그럽지 못해서 생긴 일이나 자기의 업보가 생기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둑질을 하든 사람을 죽였든 겁이 안나는게 왜냐하면 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 한 것만큼 그 댓배로 이자붙여 내놔야 하는 뜻이 서러있기 때문에 그런 누구나가 겁지 않는 거죠. 남의 걸 갖다 써도 그것은 자기한테 스스로 몇 배로 손해가 오는 거니까요. 사람의 양심은 언제나 자기를 살리고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운면 살고 지혜롭지 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마음 속에 욕심이 많아서요. 팔자운명이 따로 있습니까? 모든 건 자기가 어떻게 너그럽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문

**“본래 자기뿌리 있는줄 모르고  
먼산보고 ‘잘되게 해주시오’  
밖으로 빌면 무슨소용있나”**

도 불구하고 자기 뿌리는 모르고 그저 먼 산 바라보고 ‘잘되게 해주시오’하고 기도나 하고 안되는 것 되는 것을 다 한 데 갖다 놓고는 바깥으로 기도하죠. 그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결어야 하는데 이게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자꾸자꾸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곡하게 말을 하는 것은 내 욕심은 이렇게 허덕허덕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내 주장자에선 돌 아니게 중심을 잡고 자기 몸 보기를 저 물 출렁거듯이 보려고 하죠. 그런데 물이 온전하니까 지금도 실 새 없이 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고 깨고 살고 하는 게 그냥 물같이 그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물이 온전하니까? 거진 흠뻑물도 들어갈 수 있고 파도도 칠 수 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죠. 욕심이 너무 많으면 물이 너무 많아서 넘치게 됩니다.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무서운 잠마가 오게 되죠.

그러니 마음으로 생각을 잘해서 넘치지 말고 즐지도 않게 그냥 평등공평법으로서 자기 몸통이 고생을 하든 잘하든 닦고 놓고 지켜보면서 그냥 유유히 여유하게 가시란 말입니다. 내 몸통이 흔들리고 아웅다웅 해도 그런 집이 망가질 뿐이지 지켜지지 않거든요. 친척이 그럴 때도 착이 없이 아예 광채버리고 관하고 놔야 그쪽에도 돌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온통 '아이구, 죽게 됐는데, 이거 살아야 할텐데...' 하고 아웅바둥하던 말입니다. 가깝게 있던 멀게 있던 마찬가지로. 진짜 믿는다면 탁 광채쳐서 놓을텐데 믿질 못하니 그렇게 야단치죠. 오히려 '죽어든지 살리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놓으십시오. 이게 꼭 죽고 사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 모두 다 있는 겁니다. 어떠한 거든지 적든지 크든지 '너 알아서 해!' 하구선 딱 맡겨놓으면 알아서 하지만, 맡겨놓지 않고 쫓다 했었다 쫓다 했었다 하면 영 그건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누구에게 책임을 맡겼으면 그냥 탁 맡겨야 할 텐데 의심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 잘못되는 게 많죠. 그러면 상대는 의욕이 생기지 않고 책임감이 들지도 않죠.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사에서 자꾸 도둑을 맞아요. 누가 그랬는지 마음으로는 죄하는데 물증이 있어야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루는 두 사람을 불러다가 아예 관리인으로 책임을 지웠대요. '너희들 밖엔 믿을 사람이 없으니 까 이 열쇠를 가지고 아예 도둑맞지 않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날부터 도둑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만약 사람을 시켜 물증을 찾으려고 했다면 회사가 무슨 꼴이 됩니까. 양심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인과응보가 생기고 원수가 되고 보복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그냥 끝간 데 없이 따라 다니는 거죠. 복수가,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저놈은 참 나빠. 저놈 하는 건 능숙하지 못한 데다가 일도 잘 못하고 못된 놈이니까 목을

제지만 너그럽지 못하게 태어났어도 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면 되는 겁니다. 내 집이 아무리 못해도 내 집은 내 집이죠. 원두막 같아도 내 집은 내 집이예요.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주인만 있다면 그것은 어떡하든지 안헐가는 내 집을 크게 잘 짓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더 자세한 말을 안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믿습니다.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의 몸이라는 수레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심령이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같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묘하고 광대한지 그 심령으로 하여금 바퀴가 접점을 해서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자기가 집을 떠나서 수십만 개로 응신이 돼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선 마성물에서부터 부처에 이르러 가지 아니 되시는 게 없이 전부 내가 되어 주시죠. 찰나찰나 말입니다. 그러니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내 자식이 따로 없고, 내 형제가 따로 없이 아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왔을 때 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는 없다' 하는 데서 부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저 나무들을 보세요. 가을이 되면 저질로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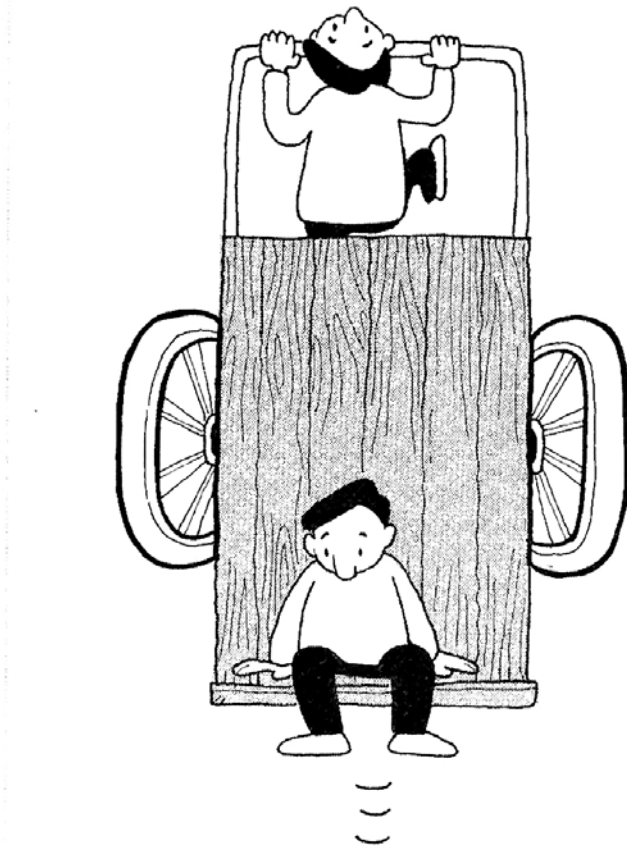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해라, 그리고 남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한다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공한 것이며 불교라는 자체가 머리 깎은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불(佛)이니 이미 그 속에 포함돼 있죠. 그리고 물 안에서 고가들이 사는 것도 교(教)이며 우리들이 사는 것도 교이며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게 전부 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무의 세

삼아드려도 스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당신 주인한테 감사하다고 할 일이지 나한테 그럴 게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사는 게 갖는 거지, 나한테 뭘 갖다주고 이래서 갖는 게 아니예요. 내 마음의 뜻을 알고 자기의 마음의 뜻을 알고 일체가 다 부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 그게 갖는 거예요." 그랬어요.

살다보면요, 저 고기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사는 것도 참 애석해요. 우리네 살림살이와 똑같거든요. 모습이 다르고 생활은 달라도 사는 이치는 똑같아요. 어느

서 고깝다고 하더라도. 발 씻길 때 아는 책을 썼더라면 영원히 그 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텐데 이렇게 밝은 곳에 오게 되어 이 도리를 알게 되었으니 이 고마움을 어떻게 할 수 없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과 영이 한데 합쳐도 영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다 한 데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깨닫고 출지를 얹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계성이 들렸다 하면 그 사람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그냥 착을 두지 말고 영 그 자체, 그 마음만 여가다 넣고는 관해주고, 생각할 때마다 거가다 넣으면 오히려 영계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몸으로 받들고 마음으로 받들다가 도저히 없어질 수가 없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남을 구제한다 하는 것도 당장 먹을 게 없어 배고픈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먹을 걸 주는 것이 보살행이지, 배고픈 사람 보고도 광채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고 뭘 들고 온다면 진짜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산 부처는 부처 아니니까? 목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죠. 그리고 내 자부처가 제일 가깝지 탄 데 부처가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 내 부처가 목마른 나를 먹일려면 내 몸을 팔고 가서 먹여야 내가 시원하지 이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내 목마른 걸 대신 면해줄 수는 없습니다. 배고픈면 자기가 밥먹고 목마르면 자기가 물 마셔야죠. 먹을 게 없으면 주인공이 다 먹이게끔 하거든요. 자기 자부처가 자기가 형성시켜서 이끌고 가는 자기 몸통이를 안 먹이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죽이나 살이나 보자 하고선 남들은 미숫가루를 해가지고 산열 들어간다는데 나는 그것도 다 내버리고 홀출단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떠났어요. 어느 때는 잠잘 데도 없고 배도 고향췌. 아주 쌀쌀한 겨울에 갈대가 무성하고 그랬는데 참 추웠어요. 길을 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애, 저리로 가보자.' 이레요. 그래서 갔더니 갈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때는 옷도 변변치 않았는데 갈대 속을 헤치고 들어갈라니 다리에 피가 나고 발바닥이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디 들어가 보자. 이까짓 몸통이야 언제 가도 갈 건데 뭘.' 하고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입니다. 이러한 산발기들이 그냥 할망개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흡신 따 먹다 보니가 이전 살았더라구요.

어디 죽이나 살이나 보자 하고선 남들은 미숫가루를 해가지고 산열 들어간다는데 나는 그것도 다 내버리고 홀출단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떠났어요. 어느 때는 잠잘 데도 없고 배도 고향췌. 아주 쌀쌀한 겨울에 갈대가 무성하고 그랬는데 참 추웠어요. 길을 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애, 저리로 가보자.' 이레요. 그래서 갔더니 갈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때는 옷도 변변치 않았는데 갈대 속을 헤치고 들어갈라니 다리에 피가 나고 발바닥이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디 들어가 보자. 이까짓 몸통이야 언제 가도 갈 건데 뭘.' 하고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입니다. 이러한 산발기들이 그냥 할망개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흡신 따 먹다 보니가 이전 살았더라구요.

어느 스님 말씀에 지기로 너무 함정 해주는 것보다 마음보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마음 보시도 중요해 하지만,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기 위해서도 꼭 할 수 있는 만큼은 물질보시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스님께 여쭙습니다.

한 바가지 주면 이자가 늘어서 바가지가 올 것이고, 한 바가지를 훔쳐먹으면 세 바가지를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 채워줄 수 있는 자기의 보배가 모두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은 찾아먹을 생각은 안하고 남의 것을 훔칠려고 한다. 그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남을 업신여기면 자기가 업신여김을 받고 남을 때리면 내가 맞게 되고, 남을 눈물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이 나는 이치와 같은 거죠. 공을 저 베풀면 공이 튀어 오는 것과도 같죠. 어릴 거든지 자기한테 본래 갖추어 가지고 있는 보배를 잘 쓰십시오. 사람들은 본래 나쁘고 좋은 것, 해야 될 일 안해야 될 일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래 갖추어져 있는 마음을 좋게대로 잘 쓰면서 사십시오.

스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법회 때 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한 손가락을 남에게 배풀면 두 손가락 세 손가락이 돌아오는 걸 아세요?' 하고

## ‘주인없는 빈집’ 정신도 물질도 못다스려 “남을 나와같이 생각해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남았어도 그 가지는 내년 봄에 또 필 것을 생각하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묵묵히 인내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땅 속에서 뿌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이 올라옵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있고 그 뿌리를 믿고 있기에 봄이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아웅바둥하지 마시고 여유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런 나무들은 한 해가 지나야 꽃이 피지만 우리는 한 달이 한 달입니다. 고동동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내 뿌리를 믿지 않으면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는 나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父)와 자(子)가 상통을 해야만 견성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렇지만 말입니다. 견성을 했어도 견성했다고 정부나 하면 남이라고 믿어 내놔야 하는 거죠. 그러니 나와 같이만 생각해서,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불쌍함도 나 같이만 생각해서, 눈도고 위로 생각하고지도 말고 낮다고 내려서 생각하지도 말고, 부처님도 나와 같이만 생각

게나 유의 세계나. 즉 말하자면 돌 아니게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이 진리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자기는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보이는 자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못났든 잘났든 거지는 부자는 지위가 낮은 높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억억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내러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공장을 하는데 말입니다. 물건을 팔아도 수급이 안되고 기계는 자꾸 고장이 나니까 하루는 앉아서 막 울었대요. 그런 얘기를 와서 하길래 내가 "그 기계도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의 몸통이나 당신의 몸통이 돌이 아니지. 그것도 다 주인공이 하는 일 이니까 당신은 심부름꾼으로 살아. 주인공에다 다 맡겨서 지도를 하게 하고 다 소리게 하면 좋겠지." 그랬더니 그 이튿날부터 수급도 잘되고 기계도 고장이 안나고 아주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 후에 그 사람이 와서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제 머리를 수십 번 깎아 신을

땀가 예전에 산을 걷다가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질질 끌고 갔을니까 개미 세 마리가 달려들더니 그 걸 끌고 갔대요. 개미도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 도리를 모르고 그냥 겁니까.

또 착을 두지 마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장애인 노모님이 계셨답니다. 입산을 한 뒤로 한번도 아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 아들을 영 찾을 길이 없었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에 어느 산 밑에서 지나 다니는 사람들을 발을 씻겨 줬답니다.

아들 스님은 한 쪽 발가락이 남보다 하나가 더 있을 손으로 발을 씻기다 보면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그랬던가 봅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스님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똑같은 발판 두 번 내뒀거든요. 처음엔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보고 보냈는데 저만치 산위로 올라가고 나서야 생각하니 자기 아들이 틀림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르면서 찾아올라가는데 아들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 말이에요. 그러니 어머니는 개울에 빠져서 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답니다. 그걸 보고 스님은 어머니의 육신은 벗어서 떠나보내고 영혼만 건져서 받으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

그러네 그 갈대가 말하기를 이렇게 총출한 자기를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를 이렇게 옆으로 퍼니 나 스스로 방이 돼요. 그리고 스스로 아늑하게 돌려 쳐졌구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따듯했죠 뭐. 그래서 거기 드러누워서도 따먹고 앉아서도 따먹고 서서도 따먹고 그냥 그렇게 하구서 사물을 거기서 지내면서도 참 즐겁게 웃고 살았던 적이 있죠.

사람의 몸통이는 강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착을 두지 않아도 주인이 있다면, 자기 자부처가 있다면 다 살릴 거예요. 자기 부처가 다 있으니 여러분이 불안한 일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됩니까?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예요.

**물질보시도 중요하지요**

스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법회 때 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한 손가락을 남에게 배풀면 두 손가락 세 손가락이 돌아오는 걸 아세요?' 하고

**협 찬 한마음**